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시급

### 건설업계, 공사지연 유발·수요기관 행정부담 증가 등 문제로 꼽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문제점만 속출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9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 보호를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건설현장 시스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공사지연 유발, 수요기관 행정부담 증가, 하자유인 규명의 어려움, 건설현장 공정관리 차질 및 설계변경 어려움을 꼽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진행 상황과 현장 수요에 맞춰 제때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 진행이 어렵게되고 이는 공사비 지연, 공사품질 예도 악영향을 미쳐 피해는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고 꼬집었다.

또 하자발생 원인이 공사용자재 때문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구분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않아 발주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다.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은 국회와 정부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공공 부문 건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LH 공급 아파트의 잦은 하자발생 원인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들었다.

감사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계약 물량이 소수기업에 편중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협회는 9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운영상 발주자와 건설업계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경쟁제품 지정 운영위원회에 수요기관민간전문가 등 참여 확대,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예외 신청시 의견수렴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공사 수행 중 환경변화 시 품목 예외 처리 절차 구축이다.

공사 효율성과 품질 확보 방안으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액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32개 품목에 대해 적정성 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집중 현상이 심화될 땐 일몰제 도입 및 품목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사급자제 전환 장치 마련, 대상 품목의 상시퇴출제 및 기업 2진 아웃제 도입 등도 포함했다.

제도 선진국형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도약하기 위해 품목수 및 구매 목표비율을 내리고 총량제(연간 공공공사 금액 중 직접구매대상 금액의 최소비율 지정) 도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단기공사 적용 제외, 지역제한 대상공사(82억원) 적용 제외가 포함됐다.

한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제도의 공과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선기로 결정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선택권도 없는 건설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특정산업 보호 제도가 아닌 모든산업이 수용가능한 제도로 운영돼야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는 15일 전주 터존빌딩에서 전라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 에너지공단 전북, 에너지효율대상 수상식

전북도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는 15일 전주 터존빌딩에서 전라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역 유공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공적사세를 널리 전파해 범도민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에너지와 관련한 주요인사 등 내빈, 유공자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와 유공자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올해 전라북도 에너지효율대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표창과 전북도지사 표창 등 총 12점의 표창장이 전수됐다.

한국에너지공단 박관순 전북본부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경제와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리 지역의 유공자들과 함께한 뜻 깊은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선도하는 우리 지역의 유공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광지와 문화행사 연계해 전통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청 남부권 지방청장 교류회 전주서 개최

중소기업청 남부권 6개 지방청장이 15일 전주에서 관광지,축제,문화행사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청장 교류회에는 전북중소기업청과 부산지방청, 광주전남지방청, 대구경북지방청, 울산지방청, 경남지방청 청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회를 준비한 전북중소기업청 남부권 각 지방청장들을 초청해, 아시안과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전국의 대표 시장이 된 전주남부시장과 전북 최고의 관광지인 전주부삼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조성

중인 전주한옥마을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주목 받는 전주신중앙시장을 탐방토록 했다.

현장탐방 내내 각 지방청장들은 한(韓)스타일의 고장 전주의 참 모습에 매력을 느끼면서 방문 장소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관광 지역 지방청에서도 도입해 추진할 부분을 발굴하는 동시에, 관계자 간담회 및 지방청장간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다양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전주남부시장 탐방 시 하현수 상인회장에 아시안 활성화

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일부 지방청장들은 "전주 남부시장을 롤모델로 조속히 아시안을 개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 밝혔으며, 남부권 지방청장들은 앞으로 관광,문화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방청간 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중소기업청 남부권 지방청장 교류회를 이번이 우리지역 전주에서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의 살아있는 소상공인 문화관광 자원을 각 지방청에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건보 전주북부, 장기요양기관 우수중사자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는 15일 장기요양기관 우수중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공 주체인 장기요양기관 중사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

련했다.

또한 서비스 현장의 사례 등 자유로운 환담을 통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재용 기자

## 온실가스 배출 줄이며 작물 키워요

### 농진청, 바이오차·돈분 이용 펠릿형 완효성 비료 개발

작물은 썩속 키우고 비료는 덜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료가 개발됐다.

농진청청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비해 바이오차(Biochar)와 돈분을 이용한 펠릿형 완효성 비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비료는 왕겨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차(Biochar)와 돈분 퇴비 그리고 비료 성분을 혼합해 펠릿 형태로 만든 것이며, 토양에서 천천히 녹아 오랫동안 비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완효성 비료이다.

이 비료를 농경지에 뿌리면 작물 생육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산, 규산은 약 70일 정도 길름은 약 30일 정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인재용 기자

이에 따라 기존에 비료와 퇴비를 각각 주는 방식에서 비료와 퇴비를 한 번에 줄 수 있어 30% 정도의 비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농가 일손을 크게 덜 수 있다.

작물 생육 촉진 효과도 커서 온실 내 포트에 심은 고추와 상추를 대상으로 수확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방법보다 고추는 29%, 상추는 10% 정도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겨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차를 펠릿 형태로 농경지에 뿌림으로써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고, 바이오차가 일정량의 질소를 흡착해 농경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 전기안전공, 대입 수능시험장

### 전기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7일에 있을 대학 수능능력시험일을 앞두고 전국 60개 사업소에 걸쳐 시험장 전기시설물 안전을 위한 비상 대기에 들어섰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험 중 불시 정전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약 2주 동안 각 지역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85개 지구 1,188개교 시험장 시설에 대한 특별 전기안전 점검 활동을 마쳤다.

특히 시험 당일, 전국 사업소별로 24시간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정전 등 사고발생 시 긴급 복구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18일부터 18일까지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16)'에도 참여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전기안전 마라톤' 홍보관을 마련하고, 자체 제작한 안전교육 광비를 전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기안전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 협약보험' 4조원 돌파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보험상품인 '금융지원 협약보험' 10월말 실적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협약보험'은 금융기관에서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및 대출이자 할인 혜택까지 있는 매출채권보험 상품이다.

지난 2014년 6월 처음 출시 후 올해 들어 협약 금융기관을 14개까지 늘리고 10월말까지 가입기업 928개, 가입금액 4조 2,000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큰 폭 증가했다.

심현구 신보 신용보증기금장은 "회상거래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연세 부도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출금리 인하 및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지원 협약보험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보가 중기청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은 기업 간 거래에서 거래처가 부도를 내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면, 이때 발생한 손실의 최대 8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신보 10개 신용보증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콜센터(1588-6565)에서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